

한나선교사역 이야기

- 정현 선교사 / 2003. 5. 9 -

안녕하세요.

저는 한나호를 타고 남태평양과 동남아시아일대를 순회하며 선교하는 정현 선교사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선교에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은, 예수전도단의 훈련 중 선교지는 마치 추수 때 타작마당과 같아 일손이 턱 없이 부족해 도울 손을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과 같다는 도전을 듣고 선교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었고 선교의 부담감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이라도 선교의 일익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교회에 계속 날아오는 한나호선교회의 기도 소식지를 접하면서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의 가진 기능으로 섬길 수 있길 기도했었고, 1992년 처음 한나1호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한나호는 순수한 한국기독교인들의 헌신으로 출범한 아시아최초의 복음선교선입니다. 선박의 특수성을 이용한 기동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종합 복음선교선으로 지난 15여년간 남태평양의 작은 섬 일대와 동남아시아 일대의 항구를 순회하면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호의 사역은 가는 지역마다 복음 전파와 구제 및 의료선교와 장단기 승선 사역자들과 현지인들 대상으로 선교훈련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저희가족은 결혼 전 각자가 한나1호를 승선한 경험이 있었고 결혼 후 2001년 5월에 울산항에서 합류하여 지난 2년 여간 일본, 7개국 15개항을 거치면서 낙도와 빈민 항구도시 순회하며 선교 활동을 해왔습니다.

저는 처음 1년동안은 조리 부와 봉사, 위생관리 부에서 일을 맡아 하였고 1년후 부서를 옮겨 재정부와 승선사역자 훈련 부를 맡아 일 하였고 그외 중국인 전도사역을 주로 맡아 습니다. 저의 아내는 의료인으로서 선상병원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남태평양 압에 있을 때 중국어선들을 만났던 일이 아직도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6여 개월을 조업을 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들과 조업을 계약한 회사에 문제가 생겨 인금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고 하루하루 열악한 환경과 식료품이 그의 바닥난 상태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수개월을 야채를 먹지 못해서 피부병과 안질, 비염, 조업 중에 다친 찰과상 의 통증 등으로 저의 선상 병원으로 찾아와 치료를 받고 그들에게 쌀과 옷들을 나누어주면서 전도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로 30여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중에 3-4명은 매일 배로 찾아와 함께 성경 공부했던 일이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있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배가 압을 떠나 올 때 모두가 부뚱가에 나와 눈물 글썽이며 손 흔들며 주던 그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남아 있습니다. 훗날 들은 이야기로는 대부분의 배들이 중국으로 귀국하였고 나머지 배들은 다른 곳으로 조업을 떠났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에는 중국어부들 뿐 아니라 옷 공장 근로자들이 수백 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사역자가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여호와와 증인이 매일 그들에게 찾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을 떠나 있는 마음은 더욱 아타까웠습니다.

배는 육지와 달라서 24시간을 수개월씩 또는 몇 년씩 한 장소에서 그것도 첩판 위에서 사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립성으로 인해 보다 쉽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게다가 한나호는 다국적 사역자들과 다양한 민족과 언어를 사용하는 팀 사역이다 보니 관계에 보다 많은 마찰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도 적지 않은 마찰과 불화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관계뿐만 아니라 배는 항상 내부와 외부로부터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24시간 당직을 서며 선상에서의 작업. 화재. 폭풍, 산호초. 해적의 위험 등이 늘 있어 보다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공동생활입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저희배가 산호에 좌초되고 태풍을 만나 죽음에 직면한 적도 있었습니다. 배는 또 첩판으로 되어 있어 맡은 업무와 많은 사역에 임하다 보면 건강유지에 신경을 잘 안 쓰게 되면 쉽게 몸이 지쳐 허약해 질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역자들이 선상선교활동 중 발생한 병으로 귀국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상공동생활은 철저한 질서와 규칙아래 인내와 자기 훈련이 요구되어지며, 순종과 겸손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철저한 시간 관리와 경건 생활 유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동안 몇몇 지역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여전히 느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선교지는 마치 농부의 손을 기다리는 추수 때의 들녘과도 같아 많은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이 있는 곳이라 해도 터무니없이 모자라는 손길에 지쳐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직도 많은 곳에 복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것을 보면서 저는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선교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그리스도가 있는 가슴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장기로 또는 단기로 스스로 작고 보잘 것 없어 느끼는 것이라도 겸손히 주님나라를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드리기 시작하면 그분께서 스스로 일 하시라 믿습니다.

지난시간을 되돌아보면 항구마다 만났던 얼굴과 이름들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 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밤하늘의 별만큼이나 하늘나라에 영원히 빛날 것이라 믿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쉬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 없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자이고 또 드릴만한 것 또한 없는 자라는 것을 압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결정 할 때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드린 어린 아이 심정으로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저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파송하고 함께 주의나라를 위해 동역 해 주신 성도님과 교회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